

## “BBK 내가 설립” 이명박 동영상 파문

# 盧, 재수사 지휘권 발동 지시

### 법무부 오늘 오전 중 결론 내기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 투자자문을 설립했다고 밝힌 동영상에 전격 공개된 가운데 청와대가 16일 'BBK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BBK 사건'은 대선을 이틀 앞두고 최대 변수로 재등장한 것은 물론, 17일 직권장정이 예고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성진 법무 장관에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질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저녁 노 대통령의 BBK사건에 대한 지휘권발동

검토 지시를 놓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실·국장 등 간부들이 모여 각종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다시 한 뒤 가급적 오전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각계 시민단체와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10월17일 이명박 후보의 광운대 특강이 담긴 동영상 공개했다.

신당 측은 “이 후보가 특강에서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다.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생각을 했고 지금 정부에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한, 광운대 특강을 통해 당시 기자였던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는 물론, 각종 신문 인터뷰도 거론했다.

청와대의 'BBK 사건' 재수사 지시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무소속 후보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합민주신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임동욱·박지경기자 tuim@kwangju.co.kr



투표함 심수송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6일 원도군 선관위 직원들이 완도항에서 보길도와 생일도 등 섬지역으로 수송할 투표함을 군청 행정선에 싣고 있다. 선관위는 섬지역으로 들어가는 투표함을 17일까지 모두 운반할 계획이다. /원도=워킹맘기자 jrwi@

## 대선 D-2

## 광주·전남 민심은

# 鄭으로 느슨한 결집

“부동산, 말 실수 빼면 참여정부가 잘못된 게 뭐죠?”(대학생 박영길(22)씨) “경제를 살릴 후보가 최고 아니어야?”(D슈퍼마켓 주인 김용근(56)씨) “그래도 호남 후보가 있는데~”(택시기사 장상일(45)씨)

17대 대선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16일 광주 시내 중심가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3인3색의 반응을 보였다.

특유의 강한 응집력과 ‘전략적 선택’으로 선거관의 흐름을 바꿔버린 지난 두 차례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른 태

도였다. 유세장 열기 또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가리앉아 대선 분위기를 제압하기 어려웠다. 주요 길목마다 펼쳐지고 있는 각 캠프 선거운동원들의 시선끝기 경쟁이 안쓰러울 정도다. <관련기사 4면>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서 벌어지는 ‘정치적 메카’인 광주·전남 민심의 흐름은 정동영 후보쪽으로 결집되는 양상이다.

광주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서 후보는 광주에서 47.1%, 전남에서 40.6%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 지난 11월 말 조사때 보다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 후보가 얻은 90%대 득표율과 비교하면 응집도는 크게 약화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독주 체제를 굳힌 이명박 한나라

당 후보는 14.1%, 이회창 후보는 8.3%를 얻어 두 보수진영 후보의 광주·전남 지지율 합계가 22.4%를 기록했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달라진 민심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대선 때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부동층과 투표 무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투표율 또한

전선대에서 만난 임형록(25·법

학과 3년)씨는 “후보자들이 난립한데다 문제가 있는 후보들도 많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며 총선에 올인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정보리서치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막판 벌여 후보에 대한 표출된 여부가 남은 변수”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 연합정부 구성과 벌여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재야인사와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당사 점거 농성에 이어 여성계 및 재래시장 상인 대표들까지 잇따라 정권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16일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옥상이 담긴 동영상 CD 공개와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가 막판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 일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응집력 떨어져... 보수후보 지지 22.4%

### 시민단체 “후보 단일화” 막판까지 촉구

## “무안공항~백두산 직항로 열어달라”

### 전남도, 건교부에 건의

무안국제공항이 백두산 직항로 확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내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길이 열릴 것에 대비해 무안국제공항~백두산 삼지연 공항 간 직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최근 건의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순수 민간공항이지만 국제적 항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서해안 항로에 접근하기가 쉽고 군사적 걸림돌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호남권에 백두산 관광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감정으로 내세웠다.

전남도는 백두산 직항로가 확보되면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무안공항 외에도 충북 청주공항과 강원 양양공항,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지방공항이 백두산 직항로 운항을 정부에 건의해두고 있는 상태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다.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청주공항 백두산 거점 공항 지정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백두산에 항로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공항도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4차례에 걸쳐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북한을 다녀온 경험을 내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순수 민간공항이지만 국제적 항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잠재적인 관광수요도 충분히 백두산 관광의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부족함이 없다”며 “건설교통부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우일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 社告

## 韓銀 ‘겨울방학 경제캠프’

###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대상...참가비 무료

광주일보사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경제관을 심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경제캠프’를 연다.

경제캠프에서는 신용관리와 부자의 특성 이해,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수료증이 교부됩니다.

- ▲대 상=광주·전남지역 중학생 90명 내외(1회당 45명 내외)
- ▲기 간=1차: 2008년 1월 8일~1월 10일  
2차: 2008년 1월 15일~1월 17일
- ▲장 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신청방법 및 문의=21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홍보팀  
☎062-601-1109, 1105

光州日報社·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李 ‘특검법’ 수용

### “BBK 한 점 부끄럼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6일 당초 당론으로 거부해왔던 ‘BBK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가 끝난 뒤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특검 수용 표명에 따라 특검법안 제출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던 여야간 극한 대치 양상은 일단 꺾일 수 있게 됐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겠다”면서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그는 “나는 특검이 두려워서 반대해온 것은 결코 아니고 전략적 특검이었기에 반대해왔다”면서 “정권 연장을 위해 청와대가 개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용 배경과 관련, 그는 “오늘 TV 토론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여의도 의사당을 봤다. 국회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고 끝 큰 싸움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음해와 공작으로 얼룩진 네거티브 선거의 절정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는 BBK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럼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필뉴스

전남 경제를 살리는 영산강과 선벨트

이명박 2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투표하시요